

“가축 굶어죽게 생겼다”

곡물 수송 끊겨 사료 공급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넘게 되면서 옥수수 등 곡물 수송이 끊겨 사료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2~3일 안에 원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나 돼지에 사료를 먹일 수 없는 비상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 축협 등에 따르면 (주)농협사료 나주공장과 목포공장의 경우 월평균 3만8천t, 2만t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곡물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목포항과 군산항, 인천항을 통해 옥수수나 대두박, 소맥과 등 곡물을 들여와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완성된 제품은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에 공급된다. (주)농협사료 나주공장의 경우 하루 1천520t의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주 원료인 옥수수는 7일분, 부 원료인 대두박·소맥과 등은 1~2일 분량이 남아 있을 뿐이다.

(주)농협사료 나주공장 관계자는 “파업이 이를 이상 지속되면 공장가동 중단은 물론, 사료 공급 중단으로 가축 폐사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파업 불뚱이 애꿎은 축산농가로 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는 한·옥우 3만6천471가구(37만 마리), 돼지 1천250가구(80만 마리), 닭 322가구(1천427만 마리) 등 모두 3만8천43가구, 대한양돈협회 신길오(63) 목포·신안지부장은 “며칠 전부터 돼지에게 먹이던 사료 공급이 끊기면서 다른 사료로 대체해 먹이를 주고 있다. 이리다간 돼지 다 굶겨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양돈협회 등 지역축산농가는 조만간 지역별 화물연대를 방문, 사료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소포·택배 지연 ‘아우성’

식품·생물은 접수조차 못받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소포·택배 등 우편물 운송 차질을 빚고 있다.

우체국과 택배업체는 운행시간이 지연되면서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이나 생물 등은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변질 우려가 없는 공산품 등도 고객들에게 지연 슬락을 받은 뒤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남체신청과 택배업체에 따르면 대전·수도권 등 주요 거점 터미널을 오가는 10~15t 규모의 간선차량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평소보다 30%가량 운행이 줄어들면

부족하다.

이 같은 사정은 택배업체도 마찬가지다. 간선차량 20대를 운행하고 있는 A업체는 임대차량 6대가 운행을 거부해 회사 차량 14대만 운행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일주일째 새벽 2~3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운행중인 차량도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방해가 우려돼 운전자들끼리 비상 연락을 취하며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평소 간선차량 11대를 운행하던 B업체도 회사 차량 7대만 운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 소포·택배 운송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또 파업 참여 조합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우회하면서 운송시간도 지연되고 있다.

광주 우편집중국을 통해 배송되는 소포 우편물은 하루 평균 4만여 통으로 평소 160대의 화물차량이 운송해왔다. 이 중 민간업체에서 임대한 30~40대가 이번 파업으로 모두 멈춰섰다.

이로 인해 전남체신청은 우편물 전문 운송업체인 코트렌스 차량 124대의 운행횟수를 하루 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등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영장 기각

경찰이 비조합원의 운송행위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통 부장판사는 18일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원하지 않는다”며 비조합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져 구속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광산 나들목 부근에서 철야농성 중 주모(36)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물을 던져 조수석 쪽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파업 돌입 사흘째를 맞은 건설기계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 700여명이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위직람기자 jrwi@kwangju.co.kr

여수시의회 부의장 절도 혐의 징역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판사는 18일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의회 박순영 부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부의장이 공공재산인 관급자재를 업자에게 넘긴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부의장이 업자에게 받은 300만원이 뇌물로 불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위원이 일반 행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부취재본부=지평원기자 light64@

‘취업 사기’ 경찰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구직 희망자 20여명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선모(35)씨와 선씨를 도운 S(37)씨, 광주시부경찰서 김모(35) 경장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구직 희망자 21명에게 6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장의 경우 13차례나 구직 사기 장소에 선씨와 동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직위해제 했다.

/최권일기자 cki@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살해범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데다 가족과 국민을 경악하게 한 어린이 살해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권을 박탈하며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수 화재 참사’ 경비 담당자 실형 확정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비 담당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임모(45·6급)씨와 상하급 근무자 오모(39·7급)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계장은 화재사건 당일이 지난해

2월11일 새벽 1시30분께 야간 상황실장이었음에도 오씨만 혼자 남겨둔 채 잠을 자기 위해 당직실로 들어가 쉬고, 오씨 또한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지 않고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여수 출입국사무소 소장 직무대리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비과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꼬리 잡힌 병문안 가장 상습 절도

○병문안을 가
장해 병실에서 환
자와 보호자의 금
품을 훔쳐낸 10대 4명이 경찰에 달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16)군 등 4명은 지난달 6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병원 3층 병실에 들어가 옷장을 뒤져 환자 상모(여·56)씨의 금반지와 89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등 광주 시내 병원에서 1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조사결과 신군 등은 집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북구 두암동, 용봉동, 운암동 등 광주시 북구 지역의 병원에 병문안을 온 것처럼 위장해 들어가 환자들 잠을 자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을 붙잡았으며, 신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동양의 향연이

MINAN

무안++하이난(삼아)직항 제주수,보가제 편성 ₩899,000~

항선명	출발	도착	편성	비고
MINAN	07:00	10:00	₩899,000	제주수,보가제 편성
MINAN	10:00	13:00	₩899,000	제주수,보가제 편성
MINAN	13:00	16:00	₩899,000	제주수,보가제 편성
MINAN	16:00	19:00	₩899,000	제주수,보가제 편성
MINAN	19:00	22:00	₩899,000	제주수,보가제 편성

실시간항공, 항공기입력 - 북.동남아시아권, 북.동남아시아권, 북.동남아시아권

문의전화 : 02-225-8070